

# 대한상의 브리프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수석연구원



제133호 2020년 10월 12일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자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가져올 변화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편집자주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美 대통령 선거가 야기할 변화와 시사점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11월 첫째 주 화요일에 진행 된다. 올해는 11월 3일로 20여일이 남았다. 미국은 직선제가 아니라 선거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다. 11월 3일은 정확하게 말하면 선거인단을 뽑는 날이지만 그 결과로 사실상 차기 대통령이 결정된다.

여론 향배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TV토론은 1차가 지난 9월 29일에 열렸고 이제 2차(10월 15일)와 3차(10월 22일) 두 차례만 남겨 놓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전이 그야말로 막바지에 들어선 것이다.

보수성향 기관인 라스무센의 조사이기는 하지만 9월 16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4년 전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조사에 뒤졌으나 결국 승리한 바가 있고 더욱이 이번 선거는 Covid-19를 비롯한 여러 불확실하고 복잡한 요인이 맞물려 있어 결과를 선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2일 Covid-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그 파장 여부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 바이든 우세... 결과는 예측불허

현재 판세는 민주당 바이든(Joe Biden) 후보가 10%p 안팎의 리드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경합주를 중심으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추격을 하는 형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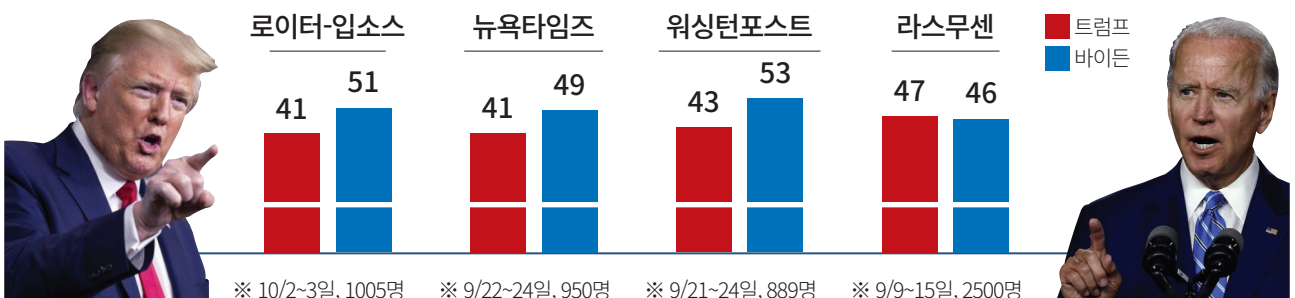
### 트럼프와 바이든의 경제분야 공약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정책기조가 바뀌게 되면 정치, 외교, 경제, 안보분야를 총망라해 세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 트럼프 vs 바이든 전국 지지율 ]

(단위 : %)



※ 출처 : 언론기사 참조

#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된다면 'America First'를 기치로 한 현재의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대내적으로는 과감한 감세와 규제완화 등의 투자 유인책을 시행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이익에 반하는 것은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국제협약(파리기후변화협약)과 다자간 무역협정(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도 추구해 왔다. 이번 선거의 슬로건은 'Keep America Great'이다.

정권탈환을 노리는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는 'Build Back Better' 플랜을 발표하며 미국 경제를 Covid-19 사태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되돌려 놓을 것을 천명했다. 중산층 확대를 통한 경제재건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과감한 재정투입, 대규모 인프라투자, 취약계층 지원, 사회안전망의 현대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세제, 무역, 기후변화대응, 산업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차이를 보인다.

## ① 세제 (감세 vs. 증세)

우선 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민간활력 제고를 위해 **감세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법인세 인하(최고 세율 35% → 21%)**를 영구화하고, 2025년에 종료되는 **개인소득세 감면 조치(최고세율 39.6% → 37.0%)**에 대해서도 연장하는 것을 밝혔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의 감세 조치는 부유층을 더 윤택하게 했을 뿐이라며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9.6%로 다시 인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성한 자금은 인프라투자 등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 ② 무역 (보호무역 vs. 자유무역)

무역정책에서 **트럼프**는 관세부과 등 일방적 조치를 동원한 **보호무역**과 **미국 우선주의**를 고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전임자들의 개방적인 무역협정 때문에 무역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미국 내 일자리가 대거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 [ 트럼프와 바이든 정책 비교 ]

트럼프	주요 정책	바이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법인세 인하(21% 세율 영구화)</li><li>· 개인소득세 감면(2025년 종료) 연장</li></ul>	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법인세 인상(21% → 28%)</li><li>· 개인소득세 인상(37% → 39.6%)</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보호무역주의</li><li>· 對중국 통상제재 지속</li></ul>	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유무역 옹호</li><li>· 중국 불공정 관행은 개선 필요</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화석연료 사용 지지</li><li>·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li></ul>	기후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00% 청정에너지 경제 실현</li><li>·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민간자율</li><li>· 금융, 의료 등 규제완화</li></ul>	산업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시장개입</li><li>· 대형 인터넷 플랫폼 규제강화</li></ul>

#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바이든은 트럼프의 소모적 관세정책에 비판적 입장이다. 그는 미국이 앞장서 세계 무역의 규칙을 만들고 전 세계의 무역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자유무역을 옹호해 왔다. 특히 對중국 견제와 제재를 위해서는 관세 조치보다 동맹국·파트너들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고 더 효과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정책 강령에서 미국 경제가 회복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국내 투자를 우선하고 새로운 무역협상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복귀는 새로운 무역규범 정립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 3 기후변화대응 (불필요 vs. 필요)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대응에서 바이든은 트럼프와 정반대의 스탠스를 취한다. 트럼프는 기후변화(지구온난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화석연료 사용을 지지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파리 협약을 탈퇴했다.

이와 달리 바이든은 기후변화를 실존하는 위협으로 인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임 후 4년간 수소경제 생태계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부문에 2조 달러를 투자해 '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와 100% 청정 에너지 경제를 실현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해 국제적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미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도 밝혔다.

### 4 산업정책 (민간자율 vs. 시장개입)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 의료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완화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는 미국 금융회사들이 과도한 규제에 파괴됐다고 월가에 대한 규제당국의 감독권한을 축소하는 바 있다. 그는 또 민간 건강보험 활성화와 신약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바이든 후보는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시장지배력이 큰 인터넷 플랫폼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반독점 감시, 콘텐츠 관련 면책 축소, 개인정보보호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공통점은 제조업 희생과 일자리 창출

전체적으로 보면 양측은 모두 미국우선주의를 지향한다. Covid-19에 따른 위기의식과 최대 승부처가 되는 러스트벨트의 표심을 반영한다. 경제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기반 강화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방법적으로도 대규모 인프라투자, Buy America, 對중국 강경책 지속이 겹친다.

바이든은 첨단기술 개발과 기반시설 정비 등에 2조 달러 투자 구상을 내놓았고 트럼프의 인프라투자는 5G 통신을 중심으로 1조 달러 규모이다.

Buy America를 위해서는 리쇼어링과 미국산 우대 정책이 망라돼 있다. 트럼프는 'Made in America' 제품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시행할 것을 밝혔고, 바이든은 정부조달에서 미국산 인정조건을 까다롭게 해 미국산 원자재 사용을 유도한다.



### [ 제조업 희생정책 ]

	트럼프	바이든
인프라투자	1조 달러	2조 달러
Buy America	세금공제	공급망 회귀
對중국 견제	엄정 대응	엄정 대응

#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정부지원으로 기술혁신 및 제품개발에 성공한 경우에는 생산거점을 국내에 두도록 하고, 제조업 공급망을 미국으로 회귀시켜 의료물자 등의 대외의존도를 낮출 방침도 제시됐다.

또한 바이든은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도 피력했다. 기술 탈취, 불공정행위, 불법 보조금 지급 관행에 강력히 대응하고,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는 동맹국과 협력해서 시정을 압박할 것을 천명했다. 이것은 정도와 방법만 다를 뿐 기본노선에서는 트럼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대비 필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의 경제정책과 대중국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차기 미국정부의 정책방향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미국 내 생산을 강조하고 있어 북미시장 등의 공급망 전면 재검토가 요청된다.

그동안 중국의 경제성장, 보호무역 강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 글로벌 밸류 체인에 점진적 변화가 있어 왔는데 올해 Covid-19에 더해 미국 차기 정부의 리쇼어링정책이 가속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급진전될 수 있다.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미중 통상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對中 강경파인 트럼프뿐 아니라 민주당의 바이든도 중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미국과 중국의 정책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지난 몇년간의 케이스 스터디 등도 있어야 하겠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는 ICT 강국인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친환경, AI, 전기차 등 시대적 흐름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정부와의 긴밀한 연대 협력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 Covid-19 영향 등으로 디지털 교역, 언택트산업의 활성화는 큰 흐름으로 자리잡았고 국제규범의 등장도 예상된다. 데이터 교류 및 상업적 활용,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안보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도 있어야 할 것이다.



## [ 美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방향 예측하고 대비 ]

대 이 방 안	01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비	북미시장 등 공급망 전면 재검토
	02	미중 갈등에 탄력적 대처	정책 모니터링, 케이스 스터디
	03	미국의 경기부양정책 활용	기회 포착, 정부와 긴밀한 연대 협력
	04	디지털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	데이터 활용과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 출처 : 대한상의 '제3차 통상포럼'(2020. 9.24.) 자료 참조해 제작성

# 국내·외 경제지표

2020년 10월 12일 기준

##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

	2018	2019 <sup>(E)</sup>	IMF		OECD	
			2020 <sup>(P)</sup>	2021 <sup>(P)</sup>	2020 <sup>(P)</sup>	2021 <sup>(P)</sup>
한국	2.7	2.0	-2.1	3.0	-1.2	3.1
세계	3.6	2.9	-4.9	5.4	-6.0	5.2
미국	2.9	2.3	-8.0	4.8	-7.3	4.1
중국	6.6	6.1	1.0	8.2	-2.6	6.8
일본	0.8	0.7	-5.8	2.4	-6.0	2.1
EU	1.9	1.2	-10.2	6.0	-9.1	6.5

\* E -잠정치(Estimate) / P -예상치(Projections)

## 2. 환율·유가<sup>1)</sup>

(단위 : 원(환율), 달러(유가))

	2017	2018	2019	'20.5월	6월	7월	8월	9월
원/달러	1,131	1,100	1,166	1,229	1,210	1,199	1,187	1,179
원/엔(100엔)	1,009	996	996	1,146	1,125	1,122	1,120	1,116
원/위안	167.5	166.4	166.4	172.5	170.7	170.9	171.1	173.0
원/유로	1,276	1,299	1,299	1,339	1,362	1,373	1,403	1,391
유가(Dubai)	53.2	69.7	63.5	30.5	40.8	43.3	44.0	41.6

## 3. 산업지표

(단위 : %(전년동기대비))

	2017	2018	2019	'20.5월	6월	7월	8월	9월
산업생산	2.6	1.6	0.6	-5.6	0.7	-1.5	-3.4	-
소매판매	1.9	4.3	2.4	1.7	6.4	0.5	0.3	-
설비투자	14.4	-3.6	-6.2	3.5	13.6	8.1	-1.8	-
수출	15.8	5.4	-10.4	-23.8	-10.9	-7.1	-10.1	7.7
수입	17.8	11.9	-6.0	-21.0	-11.2	-11.6	-15.8	1.1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